

2024년도 7급 공채 교정직 공부 후기

방*혁

1. 수험 기간 및 일정

- 2023.7.8. → 2024.12.20. (15개월)
- 1차 시험(24.7.27) → 2차 시험(24.10.12) → 실기 시험(24.11.20) → 면접시험(24.12.07) → 최종 합격(24.12.20)

2. 최종 합격 점수

- 1차: 언어논리·상황판단(1과목), 자료해석(2과목) → 평균 86.66점
- 2차: 헌법(1과목), 교정학(2과목), 형사소송법(3과목), 행정법(4과목) → 평균 95점 이상

3. 전체적인 공부 일정(전공)

※박문각 공무원 현장강의 들었습니다.

※강의 복습은 회독이 아닙니다.

※표의 '회독'은 누적 회독을 의미합니다.

※색깔 처리 부분은 PSAT에 집중한 기간(진할수록 더 PSAT 중심)

※강의는 이론 강의만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독학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인강으로 환기(식사 시간, 도서관에서 집 오갈 때 등 귀로만 들었습니다 → 올패스 최대 장점)

※24.3월부터 '기출문제집'에는 다른 시험 24년 최신 시험 문제 포함(경찰, 경찰 간부, 소방 간부, 법무사, 변호사, 법원 행시 등 24년도에 시행된 시험의 문제를 뽑아서 공부)

※후기에서는 개월 수만 따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수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날짜	개월	강의(현장)	강의 복습	기본서	기출문제집
23.7 → 23.8	2개월	기본강의	0	0회독	0회독
23.9 → 23.10	2개월	심화강의	0	1회독	0회독
23.11 → 23.12	2개월	-	-	2회독	1회독
24.1 → 24.2	2개월	-	-	3회독	2회독
24.3 → 24.4	2개월	-	-	4회독	3회독
24.5 → 24.6	2개월	-	-	5회독	-
24.7 → 24.7	1개월	-	-	-	-
24.8 → 24.8	1개월	-	-	6회독	4회독
24.9 → 24.10	1개월+1주일	-	-	7회독	5회독
24.10	1주	-	-	8회독	-

4. 전체적인 공부 일정(PSAT)

날짜	개월	강의(현장)	24 법행·입법고시	5급 11개년	7급 11개년
23.7 → 23.8	2개월	기본강의	-	0회독	0회독
23.9 → 23.10	2개월	-	-	1회독	0회독
23.11 → 23.12	2개월	-	-	1회독	0회독
24.1 → 24.2	2개월	-	-	2회독	0회독
24.3 → 24.4	2개월	-	1회독	2회독	1회독
24.5 → 24.6	2개월	-	2회독	3회독	2회독
24.7 → 24.7	1개월	-	-	4~5회독	3~4회독
시험 7주일 전	7일	-	-	7개년 모의고사 구매	

5. 과목별 공부 경험¹⁾

(1) 1차 시험(PSAT)

① 공부 전

- PSAT 관련해서 노 베이스
- 23.7월 박문각 개강 이후 23년 7급 공채 1차 시험이 있었으므로, 집 모의고사
- 집 모의고사 결과(시간 10분 초과): 평균 72점

② 전체적인 공부 경험

- 강의는 첫 2개월만 듣고 이후 독학 시작
- 5급 10개년(14~23) 기출문제집 + 24년도 5급 기출 프린트
- 7급 15개년(11~23) 기출문제집(민경채 포함)
- **어렵게 공부하고 나중에 쉽게 풀기 위해 5급부터 공부 시작함**(결과적으로 좋은 판단)
- 시간제한 없이 문제 풀이(틀린 문제 체크) → 시간 제고 문제 풀이(틀린 문제 체크) → 시간 제고 문제 풀이(틀린 문제 체크) → 계속 틀린 문제만 모아서 반복
- 독학 시 처음에는 딱 ‘토요일’을 정해서 5급 기출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총 60문제(이렇게 해도 집에 가는 시간이 됨) → 갈수록 토요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문제 수가 많아졌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7급 기출의 경우 하루에 120문제 이상 소화 가능했음. → 24년 3, 4월쯤에는 오전 피셋, 오후 전공의 방식으로 공부 → 24년 6월, 7월에는 반대로 주말에만 전공을 공부했음.
- 마지막 열흘 정도 남겨두고, 7일 연속 모의고사 풀기 + 남은 이틀은 공부했던 것을 빠르게 회독하여 마무리 → 특히 시험 전날에는 23년 7급 기출을 실전처럼 연습(이때 평균 96점 → 이미 4회독 이상 했으니 당연한 결과)
- 24년 5급 공채 일행으로 접수 → 평균 72점(불합격)
- 24년 7월 박문각 모의고사 2회차 접수 → 평균 60점대

③ 언어논리 (점수: 96점)

- 독해는 과거 수능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 그러나 논리 부분은 거의 몰라서, 기본강의를 수강
- 결과적으로 논리 부분 도움 많이 되었음. 문제 풀이 방식 등은 마이웨이(강의 참고 X) →

1) 가독성을 위해 ‘~□체’를 사용

베이스가 없다면 논리 부분은 기본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

- 지문 분석 → 모든 선지 하나씩 분석(왜 오선지인지, 왜 정선지인지 파악 필수)
- 선지를 보고 본문을 읽을지, 본문을 읽고 선지를 볼지는 개인의 자유. 둘 다 해보고 더 잘되는 걸로 밀고 나가면 됨. (자신의 방식에 대한 의심 X) → 유튜브나 다른 매체·커뮤니티에서 말해주는 이상한 방식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됨
- 논리 퀴즈 부분도 7급은 접근성 좋고 쉽게 나오니, 공부 과정에서 5급 고난도부터 공부하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④ 상황판단 (점수: 76점)

- 가장 취약했던 과목. 언어논리+퀴즈 같은 느낌으로 다소 난해했음.
- 상황판단 중 **법조문 해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
- 문제 풀이 후, 회독마다 다른 문제 풀이가 없는지 고민 → 회독마다 더 편한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내면 기록함. 못 찾아냈다고 1시간 이상씩 고민할 필요 전혀 없음.
- 5급 11개년, 7급 15개년을 보다 보면, 비슷한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비슷한 유형들이 눈에 보일 것. 보이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있을 것임을 염두하고 공부.
- 상황판단 고난이도 부분은 공부할 때는 풀었지만, 모의고사, 실전에서는 건들지도 않음.

⑤ 자료해석 (점수: 88점)

- 초반 기본강의는 필수. 수치해석, 수치 비교 등은 이런 공부를 해보았거나, 처음부터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면 빠르게 할 수 없음.
- 강사의 방식이나 팁을 가장 많이 참고한 과목 (대소 비교, 분수 비교 등)
- 자료의 제목, 각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곧바로 선지로 이동해서,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하나씩 파훼하는 방식으로 공부.
- 7급 기준으로 하다 보면 꽤 쉬워지는 과목이기도 함 (결국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라 정답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
- 숫자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사칙연산 계산 모아놓은 자료 뽑아놓고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음.

⑥ 총 정리

- 기출이 왕. 다른 모의고사고 뭐고 필요 없음. 5급 10개년, 7급 10~15개년만 해도 충분함. 사실 5급 10개년 하기도 벅찰 것. 풀었던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것임.
- 과목 불문, 회독을 거듭할수록, 손을 의식적으로 안 쓰고 풀려고 노력해보자. 손으로 쓰면 쓸수록 시간은 더 촉박해질 가능성도 있음(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괜히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이러지 말고,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해보자.
- 모의고사는 7월에 실전 감각 익히는 용도로 풀고, 점수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본인도 모의고사는 항상 50~60점대였음.
-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 실전에서 풀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최고의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제들이라, 버릴 것 하나 없음. 그러나, 모의고사를 풀 때는, 자신이 풀지 못한 문제는 건들이지 않아야 함. 어차피 실전에서도 못 풀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

- **깡이 중요.** 7급 PSAT은 실력이 상승할수록²⁾ 본질적으로 시간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 정답을 찾았으면, 미련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깡이 필요 → 실전에서 검토 시간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정확하게 풀려고 했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자. 그 문제 맞았을 것이다.
- **뻥뻥함도 매우 중요.** PSAT은 모든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음. 실전에서 문제를 딱 보고 30초 정도 풀어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 문제는 나의 그릇으로는 답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거 풀지 않아도 합격 가능’ 같은 뻥뻥한 마인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이 문제에는 패배하지만, 시험에서는 승리한다.
- 저는 PSAT을 7월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위치마다 다르게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 PSAT을 매우 잘하는데 오래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 반대로 PSAT을 매우 못하는데 적게 공부하면 안 됨. 고려해서 계획을 짜자.

(2) 2차 시험(전공)

① 공부 전

- 완전 노 베이스. 고등학교 2학년 때 법과 정치 내신? 기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알았음.

② 전체적인 공부 경험

- 강의 수강 → 독학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독학의 경우,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사서 공부.
- 과목 공부하는 방법: ‘기출문제집 선지 분석 → 모르는 선지 색연필로 체크 후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의 기본서 부분에 같은 색연필로 밑줄 → 기본서를 기출문제 떠올리면서 읽음 → 시험 전까지 반복(색연필 색깔을 점점 눈에 띄고 진하게)’
- 기출문제 선지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야 함. 오선지라면 왜 오선지인지, 정선지라면, 왜 출제위원이 이 선지를 낸 것이고, 어떤 의미로 낸 것인지, 교재의 어떤 부분을 바탕으로 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나의 선지가 분석된 것. (따라서 분석 난이도는 정선지가 더 어려움) → 그냥 ‘응 맞는 거야’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말만 살짝 바뀌도 틀려버림.
- 처음에는 하루 60~70페이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하루에 300페이지는 소화
- 구체적으로, 기출문제집이 총 900페이지라면, 1일 동안 ‘90페이지 기출문제 분석 → 그에 해당하는 기본서 읽음’을 10일 동안 반복하면 1회독이 끝나는 것.
- 처음에는 전 과목 회독이 2개월 정도 걸렸지만, 갈수록 줄어들었음. 나중에는 오전을 피셋으로 채워도 똑같은 2개월이 걸렸고, 최종적으로는 과목당 3일이었다가, 시험 6일 전에 과목당 1일로 압축해서, 1주간 전체 1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감.
- 흔히들 회독할수록 ‘자신이 아는 것을 지우고 다음 회독때 그 부분을 보지 말자’의 식으로 회독하라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5회독(기출은 3회독)까지는 (모르는 것을 체크는 하되) 회독 시 모든 부분을 회독했음. → 지금 알았던 것이 나중에 모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 → 여러분들도 적어도 3회독까지는 전 부분을 다 회독해보자. 일단 뭘 알아야 아는 것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물론 7급 PSAT 정도는 눈으로만 풀어버리는, 공부를 매우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조차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평균 80점에서 90점 사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본질적으로는 시간 관리 싸움이 아닐까 합니다.

- 계획을 월요일 행정법, 화요일 헌법, 수요일 형사소송법, 목요일 교정학 이런 식으로 정할지, 아니면 10일 행정법 끝, 그다음 10일 헌법 끝 이런 식으로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자.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똑같다. 저는 후자의 방식으로, 한 과목을 다 끝내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갔음. (순서는 행 → 헌 → 형 → 교 고정. 이유는 없음. 그냥 제가 정한 것.)
- 결과적으로 기본서에 단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에는 기본서로 공부(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수험 기간 전체동안 기출문제집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음. 저는 후자에 속함. 단, 기본서만 공부하는 것은 제발 피하시길)
- 25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25년 3월~10월 사이에 각종 시행처에서 시험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행정법, 헌법, 형소법 겹치는 과목 뽑아서 풀어보자.

③ 행정법 총론

- 총평: 개인적으로 헌법과 함께 재밌었던 과목.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지는 과목
- 초반 틀을 잡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 초반에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첫 강의를 들을 때나 1회독 때, '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큰 틀을 이해해야만 지문이 더 잘 이해된다.
-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행정법 총론만큼 단조롭게 보이는 과목이 없을 것. 초반에만 고생하면 됨.
- [행정법 각론] 다른 과목보다 2개월 늦게 시작해서, (즉, 23년 9월부터 공부 시작) 회독이 1회 적음. 그러나 각론은 매년 출제되는 포인트가 겹치고, 총론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총론을 메인으로 공부하고, 각론은 천천히 3회독 정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됨.

④ 헌법

- 총평: 행정법 총론과 함께 재밌었던 과목, 처음은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진 과목
- 갈수록 저를 고생하게 만든 과목.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고, 재미도 있는데,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안 풀리고, 어렵고, 외울 것도 많아지는 과목.
- 조문 암기와 규범의 의미, 결과를 외우는 판례 3가지로 구분하고, 판례는 지속적으로 눈에 익히면서 암기했음. 조문과 규범의 의미는 깊게 파고들어 공부.
- 2차 시험 1달 전까지 오니까, 스스로 헌법으로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음. 헌법은 '공부를 끝냈다.'라는 말이 가장 성립되지 않는 과목
- 학원에서 강의하는 최신판례 특강은 거의 무조건 수강해야 함.

⑤ 형사소송법

- 총평: 처음과 마지막 모두 어려웠던 과목
- 처음부터 저를 고생시킨 과목.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하고, 개념도 생소해서 어려웠음. 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흐름이 중요하고, 큰 줄기를 잡아두고 가지를 뺀 방식으로 암기했음.
- 특히, 형소법은 날짜나 기간으로 장난을 많이 치므로, 사소한 부분도 암기할 필요가 있음. 각 절차마다 날짜가 약간 다른데, 이 부분이 정말 고역이었음.

· 체감 과목 난이도에 비해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오는 편이라 성적은 좋았음.

⑥ 교정학·형사정책

· 총평: 처음에는 낯설어서 뭔지 모르지만, 갈수록 익숙해지는 과목

· 교정학: 처음에 접근할 때 무슨 내용의 과목인지 잘 몰랐고, 마지막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과목이라, 암기하는데 힘들었음. 그러나 갈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과목 이해와 무관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역량은 향상됨.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암기 포인트도 몇 개 있어서, 순수 암기력 테스트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출제 포인트 반복이 심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에 비해 공부하기 수월할 수 있음. **메인 출제포인트는 형집행법과 그 하위법이기 때문에,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

· 형사정책: 범죄학 학자 나오는 부분은 '학자-내용'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암기하는데 어렵지 않았음. 다만, 나중에 보안처분 주요 5법 부분은 처음에 생소한 단어와 법조문으로 여러분을 당황시킬 수 있음. 그러나 **교정직은 교정학이 메인이라, 방대한 양에 비해 출제되는 포인트는 적으므로, 출제 가능 영역을 명확히 나누고 집중적으로 암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메인 출제 포인트는 학자 이론 부분과 보안처분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

● 이 글이 앞으로 7급을 도전할 수험생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